

개천절 온백성 초청강연회 성황 고조선 기와에 한민족 뿌리(이스라엘)를 밝히는 문자 있다

개천절을 맞아 본부제단에서 개최한 시민초청강연회가 청중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학문으로서 놀라운 감동을 주며 막을 내렸다.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인가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없다면 혼이 없는 존재가 된다. 혼이 없는 사람은 허깨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정복자들은 피정복민들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노력했다. 일제가 우리 역사를 말살하기 위하여 역사를 조작하고 역사책을 불태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서보목 강사는 “삼국유사와 한단 고기에 우리민족을 천손민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서술은 하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민족에게서 왔다고 해석해야 옳다”고 주장하며 “그 하늘의 백성은 바로 성경 상 이스라엘 민족이며, 야곱의 5 번째 아들 단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근거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에 고대 히브리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들었다.

두 번째 강사 박태선 씨는 승리신문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간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승리신문에 발표하여 학계와 종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바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앞에 서보목 강사가 보인다



있다. 박태선 강사는 “고조선 수막새(와당)에 올드네게브(Old Negev)어가 쓰여 있다”는 주제 아래 열강을 펼쳤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조선 건립 초기에 이미 기와집이 있었다고 한다. 사학계에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한테 망하고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의 고조선의 수도에 들어와서 중국의 기와를 우리나라에 전수했다고 하는데, 이를 뒤집는 증거를 박태선 강사는 내놓았다.

고조선 백성은 약 3천 2백 년 전에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이주해온 단지파 민족이며,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천제단(天祭壇)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의 출입문 위에 지붕에는 기와를 올리는 동시에 기와끝 끝에 원형 수막새를

부착할 때, 그 원형 수막새에 올드네게브 문자를 새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네게브 문자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용된 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으며 모세시대와 사사시대에도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때에 사용된 것이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석판의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 시나이반도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이 진짜 시내산임을 밝혀졌다. 그리하여 라오즈(아몬드)산 주변의 암각화에서 발

견되는 문자가 일찍이 타무딕 문자라고 명명했지만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타무딕 문자가 모세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 문자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게브 사막(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면서 사용한 원시거나 언어와 동일하다고 한다.

올드네게브 문자 새겨진 와당

그럼 고대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 문자가 어떻게 하여 오늘날까지 단지파가 되는 한민족 후손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됐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단지파의 이동 중에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100년 내지 200년 동안 우거하면서 그곳의 원주민과 물물교환을 위해 의사소통으로 알타이 말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2세들은 올드네게브 말을 잊어버리고 알타이어를 구사한 채 한반도로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백성들은 동양사에서 알타이 말을 쓰는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에 “강사 박태선”을 검색하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재시청할 수 있다.

승리제단의 진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다. 영생학은 인류 역사 처음 나온 학문이며, 한민족의 뿌리에 대한 여러 학술 또한 처음으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이므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내용일 것이다. 앞으로 계속 되는 강연에서 보다 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내용이 발표되길 기대해본다.*

윤금옥 송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3>
“일곱 번 째 천사가 마지막 완성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옮겨졌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옮겨졌고, 야곱의 하나님 단에게 네 번째로 옮겨졌고, 이어서 다섯 번째 천사가 영모님이요, 여섯 번째 천사가 해외이긴자요, 일곱 번째 천사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마지막 인을 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완성자인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지리 멸렬시키는 자인고로 무적 장수가 나

왔다. 온 우주에 팍 찬 마귀가 다 달려 텨버도 존재도 없이 멸하는 것이다.

인류사회만 뒤집어엎는 것이 아니요 온 우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계속해서 마귀를 지리멸렬시키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다.*

사건 다시보기

현금사기죄로 두 번 처벌 받은 배경(1)

영생교 승리제단 조희성 총재는 현금사기죄로 두 번 처벌되었다. 종교단체에서 현금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사기죄로 처벌되었다면 거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무언가 감춰진 배경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희성 총재는 “앞선 사건”에서 1995년 4월 28일 2년6개월의 형을 받은 후 다시 또 현금사기죄로 기소되어 1997년 6월 27일 4년형을 받았으므로 도합 6년 6월 형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구금일수가 삭감되어 약 6년10월 형이 되었다.)

기독교 목사들의 무고(誣告)

그럼 현금사기죄로 처벌받은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처벌받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배경과 그 배경에 근거한 몇 가지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첫째는 조희성 총재는 기독교의 교조인 예수를 가짜 구세주라고 맹렬히 비판하였고, 그것이 기독교 목사들과 신자들로부터 이단 또는 사이비종교라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으며, 김영삼 정부시절 국가조찬기도회에 들어간 목사들 70여 명이 영생교 승리제단을 사이비종교라고 무고(誣告), 척결해주시기를 간청하자 김영삼 정부가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 이점에 대해서는 현금무죄운동 블로그(<https://blog.naver.com/bookman5>)의 “영생교를 없애버리겠다”는 이경재검사”와 승리신문 2018. 9.1자 1면 사건다시보기에 자세히 실려있으니 참조바란다. - 당

시 기독교 정치세력에는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으며, 대형교회로 성장한 기독교 세력이 정치 현안 및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결집하여 행사하였다.

둘째는 국제종교연구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월간 현대종교를 발행한 탁명환(사망)이란 자가 자신의 월간지에 영생교 승리제단에 대한 기사를 안 쓰는 조건으로 3억원을 요구하자 그것을 조희성 총재가 거절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탁씨가 배교(背敎)한 사람들을 부추겨 조희성 구세주를 고소하게 하였다.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판과정에서 조희성 총재의 여러 진술을 참고하면 된다.

영생교와 기독교의 종교싸움

세 번째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비리(프랑스 창녀와 잤다)를 폭로한 미주한국일보 기사를 영생교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 뿌렸는데 조용기 목사는 이를 조희성 총재의 소행으로 보고 보복의 감정을 가졌고, 전술한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 영생교를 척결해주시기를 탄원하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조 총재가 예수를 가짜 구세주요 마귀세끼라고 비판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교인들이 반발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교와 영생교 사이의 종교싸움으로 발전되어,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영생교 승리제단을 탄압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행은 습관화이다

일본 유학시절 일본의 종교, '생장의 집' 수련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사람과 만나면 서로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외치며 인사를 하는 것과 웃음대회가 열리는 중에 4시간의 정도에 그 대회가 끝나고 병이 나왔다고 보고가 되는 점이었습니다. '생장의 집'에서는 '감사합니다' 인사법과 웃음을 습관화시키는 수행을 하고, 놀라운 치병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조희성 구세주님은 계속 웃으면 지

병이 다 낫고 하나님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라고 하십니다. 웃음의 좋은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세포에서 생명자가 발생하고, 엔돌핀이 생성되어 혈액 세포에서부터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깨어 있는 시간에 병마(病魔)를 박살소멸하는 열마경과 웃음 수행을 습관화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

닙니다. 일과 중에 열마경과 웃음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사업가로 10대 때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한 분의 사고법인데 '5차원 사고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인데 5차원 사고법은 미래의 자신이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신 조희성 구세주님의 하나님 되는 법에 따른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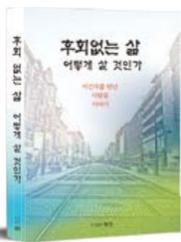
미지를 그리고 있는 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수행을 습관화해 간다면 잘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악습이 고쳐지고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식구 21일 교육 시간을 영생의 진리를 전달하는 차원에 그치지 말고, 열마경과 웃음수행 등 수행법을 습관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식구가 승리제단을 살아있는 종교로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교보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승리절 예배 안내

일시: 10월 15일 오후 1시
장소: 본부제단 예배실

승리절은 조희성 구세주께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승리절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경축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조희성 구세주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